

음식과 수행



통풍에 특효인 개다래

지옥에서 받는 형벌만큼이나 가장 견디기 힘든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엔 개다래가 최고

지난 706호에 통풍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 이번 호에서는 통풍에 아주 효능이 뛰어난 약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개다래'라는 약초이다. 물론, 이렇게 소개를 할 때에는 본 기자가 이미 그 효능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알려드리는 것이다.

혈액순환과 관절염, 그리고 중풍 등에도 좋은 개다래인데 아직까지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고 한다. 개다래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해드리는 것이 훨씬 더 공감이 갈 것 같아서 이번 호에

서는 특별히 다르게 구성해 본다. 사실 지난 706호에 통풍에 대해서 언급을 한 진짜 이유는 본 기자가 알고 있는 형님이 그 당시 통풍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통풍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던 것이다. 그때 기사 내용은 통풍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식생활 습관을 알려드렸지만 본 기자가 알고 있는 형님에게는 '개다래'를 권유했다. 하루 달여 먹고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두 잔 먹고 곧 바로 효과가 있었다. 정말 놀라운 효능이었다. 그 후 계속 달여 먹었더니 이제는 통풍이 전혀 없어졌다고 한다. 게다가 새벽에 우유배달을 할 때에 시큰거려던 무릎 통증도 없어졌다고 하니 신기할 따름이다.

사실, 현재 통풍에 치료약이라고 할 만한 것은 딱히 없다고 한다. 대부분은 진통제나 약간의 완화효과를 하는 약이라고 한다. 게다가 화학약물을 오래 복용하면 다른 부작용으로 합병증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며 실

제로 통풍 약을 10여 년간 복용한 환자 중에는 신장암에 걸린 분들이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 이렇다보니 개다래처럼 자연산 약초를 활용하여 달여 복용하면 부작용 없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다래 효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

1. 몸을 따뜻하게 혹은 덥게 해주며 약으로 쓰인다.
2. 손발의 마비를 치료하는데 약으로 쓰인다.
3. 신장 기능 개선에 아주 효과적이다.
4.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염증을 완화 또는 없애주는 데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다.
5. 통풍에 아주 좋아 개다래열매를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면 효과가 아주 좋다.
6.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에 아주 효과적이다.
7.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골다공증 치료에 아주 도움이 된다.
8. 우리 몸의 피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고혈압 같은 성인병에도 아주 효과적이다.
9. 수족냉증 완화, 요통, 중풍에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10. 원기를 보충해주는 효능이 있고 기력강화에도 효과가 있다.

아직까지 개다래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앞서 언급했는데 실제 한의학에서는 개다래 사용을 자제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개다래 나뭇가지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 시에는 환각작용이나 실명될 수도 있다고 하니 장기간 복용은 자제해야 하겠다.*

이승우 기자

입문 수기



마지막 회, 꿈속에서 수술 받고 어깨 통증과 산후풍 사라져

보잘것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께 온 몸을 다 바쳐도 부족해



이영애 권사(85세) / 본부제단

주님이 헌금시기죄로 구속되자 너무 너무 기가 막혔다.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시니 금방 나오실 줄 알았는데 한 해가 지나가도 안 나오시고, 두 해가 지나도 안 나오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웠다. 주님의 진정한 자식이려면 부모가 무고하게 옥중에 들어갔는데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데모를 하기로 장 모 권사 등 나와 뜻이 맞는 권사들하고 데모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당시 서 총무에게 데모를 하겠다고 했더니 서 총무는 데모를 하면 자신들이 잡혀가니 안 된다고 하며 극구 말려서 결국 무산되게 되었다. 제단 간부들이 자기 몸 보

신(保身)하려고 허락을 안 해주자 울화통이 터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후 옥중에서 나오신 주님은 제단 간부들이 데모 못하게 한다고 해서 데모를 안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옥중생활을 한 것이라고 간부들을 야단칠 때 나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어쨌든 주시기를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고 감사했다.

가끔 제단에서 주님 면회 순서가 내게 오면 옥중에 계신 주님을 뵈러 갔는데 나는 주님이 너무나 불쌍해서서 차마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너무 죄송스럽고 기가 막혀서 울다가 아무 말씀도 못드리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꿈에 오셔서 수술을 해주신 구세주 하나님께 아무리 감사 드려도 부족할 뿐

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병약하고 생활력 없는 남편을 만나서 고생하다가 남편이 아편에 손댄 후에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집을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살다가 박태선 장로님께서 천국에 가서 영생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

격하여 영생의 길을 달려오다가 승리 제단에 왔다. 승리제단에 와서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적도 있고, 팔목도 부러졌었고, 팔목도 부러져 본 적도 있었고, 다리를 다친 적도 있었고, 너무 너무 힘들게 살았다.

하지만 나는 영생을 포기한 적은 결코 없었다. 또한 주님을 의심해 본 적도 없었다. 영생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구세주가 안 나오셨다면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구세주께서 나오셨는데 영생이 어찌 안 이루어졌겠는가! 나는 영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고히 믿고 있다.

내 나이 85세이지만 난 제단에서 부인회 총무일을 맡아 하고 있다. 부인회 총무 일은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이지만 난 내 책임을 다해야 직성이 풀리지 책임을 다 못하면 잠을 못자는 성격이다. 부인회 식당일을 하다 보면 힘이 부칠 때도 많다. 하지만 밤에 꿈속 앓을지라도 할 일은 해놓아야 하는 성미다. 그렇게 일을 하면 수술한 왼쪽 어깨가 무척 아프고, 산후풍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통통 부어올라 추시고 아프다.

그런데 지난 2월 어느 날 주님께서 꿈에 오셔서 "힘줄이 꼬여서 아픈 거야. 내가 수술을 해 줄게" 하시더니 등 뒤

에서 힘줄을 꺼내 앞으로 가져와서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에 걸쳐 놓으셨다. 꿈에서 본 힘줄은 손가락처럼 굵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꿈속에서 수술을 받은 후에 어깨통증과 손가락 통증이 말끔히 나아버렸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상에 틀림이 없다. 나에게 일어난 이런 기적같은 일만 보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게 분명하다. 주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분신으로 살아서 무한한 능력을 베풀며 지상천국을 건설하고 계시는 것이다.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 영생은 반드시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지 영생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다시 주님을 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영생 길을 갈 것이다. 보잘것없는 죄인을 불러서 살려주시니 머리카락을 뽑아서 신을 삼아드려도 한없이 부족하고,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갚아야 할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온다. 살려주신 그 은혜를 도저히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충성하고 또 충성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이다.*

입문 수기



천국, 호기심 많은 어린 시절



박경옥권사(81세) / 본부제단

나는 1936년 함경북도 함흥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께서는 포목상을 하셔서 집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다. 내가 만팔이고,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어머니 대신 동생들을 돌볼 때도 많았다. 아버지는 성격이 무뚝뚝하면서도 가정에 별 관심이 없는 편이었고, 어머니는 한국의 여인들이 다 그렇듯 무뚝뚝한 아버지를 내조하면서 아이들을 키우시느라 무척 힘들게 사셨다.

내 기억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은 아버지보다는 오히려 큰 아버지의 모습이 더 크며 아버지께서는 기독교인이셨는데 큰집에 갈 때 기도하시거나 성경을 읽고 계시는 모습을 가끔 보곤 하였다. 그때 나도 모르게 기독교와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생겼던 모양이다.

1945년에 해방을 맞았고 내가 살고 있는 함흥은 빨갱이들이 설치기 시작했는데 기독교인이셨던 큰아버지는 빨갱이

들의 탄압을 피해 전쟁이 터지기 전에 우리 가족보다 먼저 월남을 하였고, 포목상을 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자주 남쪽 큰집과 교류를 하셨기 때문에 서울에 살기에 좋은 곳임을 아시고 우리 가족을 데리고 월남을 시도하셨다. 그런데 월남 중에 그만 삼팔선에서 빨갱이들에게 붙들려 모두 철창 속에 갇히게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고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탈출을 감행하였다. 살짝 열려 있는 철창문을 열고 밤에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산을 넘고 넘어 그렇게 고대하던 서울에 안착하게 되었다.

서울에 온 후, 중학생 시절 1950년도에 6.25전쟁이 일어나 우리 식구들은 남쪽 부산까지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휴전이 되어 다시 서울

로 올라온 후 상명여고에 입학하였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큰집이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는데 상명여고가 기독교 학교 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업중 예배 시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가끔씩 친구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도 했다.

그러다가 집안이 넉넉지 않아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고를 중퇴하게 되었다. 대신 집에서 집안일을 하였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노동을 하였고, 어머니는 행상을 하시기 때문에 동생들 뒤치닥거리를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튼 나는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았으며 또한 어디를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친구가 어디를 가지고 하면 끝날 따라다녔다. 팔순을 넘긴 지금도 그 성격은 여전하다. 호기심 많은 내 성격이 구세주를 만나게 한 원인이 되었던지도 모른다.*

1.감로이슬은 불로불사의 신약(神藥)이다.

감로이슬은 불경 열반경에 전하는바 생미륵불이 들고 나온다는 감로수요 성경 이사야 26장 19절에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빛난 이슬과 계시록과 창세기에 전하는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만나요, 생명과일을 합친 합성이라고 설명해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로와 이슬은 그 출처와 용어가 달라도 먹으면 죽지 않는 불사약이라는 같은 의미의 구세주 미륵불의 신의 물질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적암유록 해인가(海印歌)에는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 불사약인 '감로여우(甘露如雨) 해인(海印)이요, 화우로(火雨露) 삼풍해인(三豊海印)'이라고 전하고 있으니 동서양의 경전이나 예언서의 내용이 모두 같은 의미의 것으로 구세주 메시야 정도령님이 출현할 때에 인간들이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신의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감로이슬을 부여줄 수 있어야 구세주 미륵불

이처럼 인류사 6천년이 지나도록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구세주 메시야께서 출현하신 후 불생불멸의 모든 예언의 역사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즉 메시야 생미륵불 정도령께서 인간들에게 부여하시는 이슬성신이 바로 감로이슬이자 불로초 불사약이며 무궁화화를 일으키는 신의 본체요 인류

영생의 생명양식이기 때문이다.

감로이슬을 부여줄 수 있는 분이라야 구세주 미륵불이시니 그는 무궁화화의 능력으로 세계 만민을 다스리고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시며 인류영생의 참진리를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여기서 무궁화화의 능력을 보여 주신 것 이란 인간을 향한 대대공약의 실행과 분신의 능력이며 마음에 의한 피의 변화 원리 등 영생의 진리체계 말씀이다. 이로써 참 메시야와 거짓 메시야를 비교하여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때 비로소 감로이슬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제그대로 감로이슬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로의 능력은 어떤 죽을병도 낫게 하는 신통력이 있다. 이러한 능력의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경전과 예언서에서 감로의 주인공 되신 메시야 미륵불의 출현을 예언하고 기다려 왔다.

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는 아담과 해와가 생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 할까봐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했다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음을

감로의 도 ⑩

제3장. 감로이슬의 능력



예배 중에 내린 이슬성신

내어 주리라."고 전하고 있다. 주의 이슬 곧 하나님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라 함은 그것이 결코 새벽 풀잎에 내리는 새벽이슬처럼 세상의 물방울이나 액체가 아니며 또 태양 빛과 전기 불 같은 음양의 빛이 아니라 중성체 하나님의 신의 빛이다.

곧 빛난 이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으로서 완전한 생명의 빛이요, 전지전능한 구세주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 성경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으니 "말세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민들에게 부여하실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며 피와

불과 연기기둥과 같다"고 전하고 있다.

성경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했으며 또 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니 이긴자가 출현하시기 전까지 감히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과일이 어떤 것인지 몰랐고 또 생명과일을 먹을 수도 없었다.

메시아의 말씀을 실천해야 불로불사의 하나님으로 회복돼

이긴자가 곧 성령이 예언하는 메시야 구세주요,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시니 그가 감로이슬 성령을 가지고 나오시며 이 땅에 사망을 몰아내고 영원불멸의 세상을 이루는 주인공이다. 그가 곧 미륵불이요 구세진인 정도령이시니 영생의 참 진리의 주인공은 이름만 다르지 한분이시다.

지금 이 시간 누구든지 일심으로 이긴자 메시야 미륵불을 바라보고 진실로 생명을 갈구하는 21일 기도를 시작해 보라. 그는 반드시 감로이슬 은혜로 큰

깨달음과 모든 번뇌 망상을 제거하고 죽을병도 치유할 수 있다.

불교인들은 소원성취를 위하여 불상 앞에서 108배 절을 하고 염불을 외우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상 앞에서 철야기도를 열심히 하기도 한다. 그것은 참 구세주가 출현 시에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의 훈련과정도 불과했다. 진정으로 구세주 존영을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속의 모든 죄악의 마귀를 소멸하는 열마경 기도를 초초로 쉬지 않고 하는 자는 반드시 감로이슬 은혜로 불사영생의 도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하는 말씀과 같이 끝까지 메시야 이긴자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불로불사의 하나님으로 회복되어 진정 인류가 꿈꾸던 예언의 말씀을 이루리라.

인간은 인간의 탈을 벗고 해탈 성불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 그러나 감로이슬의 주인공이 오셨기에 이제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실존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구세주 민족이 거하는 한국 땅에서 세계 만민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세계, 지상천국의 세계, 불로불사 영생의 세계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갈 것이다.*